‘마운드 변화 예고’ KIA, 분위기 반전 노린다

타이거즈 전망대

오늘부터 KT·삼성과 홈 6연전
김도영 최연소 ‘30-30’ 초읽기
에릭 라우어 SNS서 기아행 예고

비 온 뒤 땅이 굳어졌을까?

힘든 한 주를 보냈던 KIA 타이거즈가 홈에서 다시 스파이크 끈을 동여맨다. KIA는 6일부터 KT 위즈를 상대하고 9일부터는 삼성 라이온즈와 주말 3연전을 펼친다. 홈 6연전을 통해 KIA는 1위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분위기 전환’이 홈 6연전의 키워드다.

KIA는 지난주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 주중 안방에서 만난 두산 베어스와의 대결에서는 평일 임에도 두 경기에 매진 관중이 입장했지만 결과는 스윕패였다.

첫 경기에서 12점을 주면서 패배를 기록한 KIA는 7월 마지막날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KIA는 두산에 4개의 홈런을 맞는 등 속절없이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6-30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다.

30점은 KBO리그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이다. 신기록 제물이 된 KIA는 ‘24점 차’라는 최다 점수 차 패배 기록도 남겼다.

점수가 쏟아졌던 두 경기와 달리 주중 마지막 3연전 승리에는 ‘1점’만 필요했다. KIA는 1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0-1패를 기록, 스윕패에 빠졌다.

패배의 충격은 8월 첫날에도 이어졌다. 올 시즌 9승 2패로 강세를 보였던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황동하가 1회 시작과 함께 노시환에게 3점포를 내주는 등 다시 또 3-10, 두 자릿수 실점과 함께 4연패가 남았다.

3일 시작도 좋지는 못했다. 유격수 박찬호의 실책 뒤 양현종이 최재훈에게 스리런을 맞으면서 전날과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현종이 초반 위기를 넘고 6회까지 책임졌고, 김도영이 역전 투런포를 장식하면서 7-3, 역전승을 완성했다.

잊고 싶은 한 주를 보냈던 KIA는 4연패 탈출 뒤 지난 4일 경기는 비로 치르지 못하면서 1승 4패로 한 주를 마감했다.

5경기에서 KIA의 팀 평균자책점은 9.61로 치솟았고, 팀 타율은 0.280에 그쳤다. 두 기록 모두 전체 8위.

우승으로 가기 위해 마운드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된 KIA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KIA는 5일 윌 크로우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캠 알드레드를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알드레드는 앞서 4일 한화전 등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비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었다.

6월 8일 두산전을 통해 KBO리그 도전장을 내밀었던 알드레드는 9경기에 나와 4.53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 2패라는 기록을 남겼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KIA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알드레드를 놓고 고민을 이어왔다. 대체 외국인 선수 신분인 알드레드가 포스트 시즌에도 뛰려면 8월 15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KIA는 엔트리에서 알드레드의 이름을 제외했다.

앞서 한국행 소문이 돌았던 좌완 에릭 라우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KIA Tigers’를 써놓으면서 KIA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36승에 빛나는 라우어는 올 시즌에는 휴스턴 산하 트리플A팀에 머물다가 방출됐다.

새 외국인 투수의 등장이 관심사가 된 마운드, 타석에서는 김도영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김도영은 7월 31일 두산전에서 베이스를 훔치면서 시즌 30번째 도루를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 3일 승부를 뒤집는 한 방을 날리면서 시즌 29호포를 장식했다.

자신의 첫 30-30에 홈런 하나만을 남겨둔 김도영은 홈팬들 앞에서 기록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 김도영이 챔피언스필드 담장을 넘기면 KBO리그 최연소 30-30기록이 작성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아컵 4강 대진 확정…광주FC, 울산과 격돌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왼쪽)과 정호연이 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4강 대진 추첨이 끝난 뒤 우승컵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1차전 21일·2차전 28일 경기

광주FC가 코리아컵 결승 문턱에서 울산HD를 만난다.

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진행된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구 FA컵) 4강 대진 추첨 결과 광주와 울산의 맞대결이 확정됐다. 또 다른 준결승전은 제주유나이티드와 포항스틸러스의 대결로 펼쳐진다.

코리아컵 4강 승부는 홈 앤 어웨이로 진행되며 2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1차전이 펼쳐진다. 이어 2차전은 28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다.

8년 만에 다시 펼쳐지는 승부다.

광주와 울산은 지난 2016년 대회 16강전에서 만났다. 당시 광주는 울산에 0-1로 패해 8강 진출을 이루지 못했지만, 현재 리그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울산에 4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번 대진으로 두 팀은 리그 일정까지 3연전을 펼치게 됐다. 25일에는 두 팀이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K리그1 28라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광주 이정효 감독은 “경기 일정상 울산을 만나게 된 것이 오히려 좋다. 결승 진출을 앞둔 만큼 이기는 경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광주는 7월 17일 홈에서 열린 성남FC와의 코리아컵 8강 승부에서 연장 후반 종료 직전 터진 빅톨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두고 구단 최초 4강 진출에 성공했다.

/김여울 기자 wool@

‘홀인원’ 안나린, LPGA 포틀랜드 클래식 준우승

안나린이 홀인원의 행운을 앞세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안나린은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16번 홀(파3)에서 티샷한 볼이 홀에 빨려 들어가는 행운을 잡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는 2021년 롯데오픈 2라운드 때 홀인원을 한번 했던 안나린은 LPGA투어에서 홀인원은 처음이다.

홀인원 부상은 걸려 있지 않지만, CME 그룹이 안나린의 이름으로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 병원에 2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다.

안나린은 “그린은 밝은데 하얀 볼이 안 보였다. 그린 주변과 환성이 울려서 들어간 줄 알았다. 정말 굉장했다”고 홀인원 순간을 돌아보고 “(기부한다는 사실은) 몰랐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16번 홀에서 한꺼번에 2타를 줄인 안나린은 공동 선두까지 올랐지만, 모리야 쭈타누깐(태국)에 2타 모자란 공동 2위(20언더파 268타)에 만족해야 했다.

안나린은 이날 4~7번 홀 4연속 버디를 포함해 버디 5개를 뽑아내고 보기 1개를 곁들여 6언더파 66타를 적어냈다.

우승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2022년 LPGA투어에 뛰어든 이후 최고 순위를 찍었다. 지금까지 세 차례 3위에 올랐던 안나린의 준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신인이던 지난 2022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공동 3위에 올라 이 대회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소미는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5위(19언더파 269타)로 대회를 마쳤다. 신인인 이소미는 LPGA투어 진출 이후 처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6언더파를 친 전지원이 공동 10위(17언더파 271타)에 올라 한국 국적 선수 3명이 톱10에 진입했다.

우승은 마지막 날 6언더파 66타를 쳐 22언더파 266타를 적어낸 쭈타누깐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김은지, 최정 꺾고 1위…여자바둑 ‘세대교체’

한국 여자바둑의 일인자가 마침내 교체됐다.

한국기원이 5일 발표한 8월 랭킹 결과 여자랭킹 1위가 종전 최정(27) 9단에서 김은지(17) 9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10년 5월 입단한 최정은 2013년 12월 여자랭킹 1위에 올라 지난달까지 무려 128개월 연속 ‘바둑 여제’의 자리를 지켰다.

2022년에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에서 여자기사로는 최초로 메이저 세계기전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인 최정은 지난 6월 황룡사배 세계여자바둑대회에서 최악으로 부진하며 충격적인 6연패를 당했다.

최정은 지난 7월에도 2승 2패에 그치며 별다른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한국 바둑계의 새로운 스타인 김은지는 2020년 1월 입단 이후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무려 14승 2패를 기록하며 최정의 아성을 위협한 끝에 결국 랭킹 1위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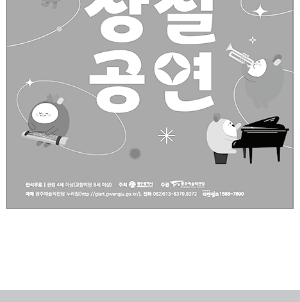
김은지는 남녀 프로기사를 통틀어 전체 랭킹에서도 15계단 뛰어오른 32위에 올라 개인 최고 랭킹을 경신했다.

최정은 전체 랭킹에서 6계단 밀린 35위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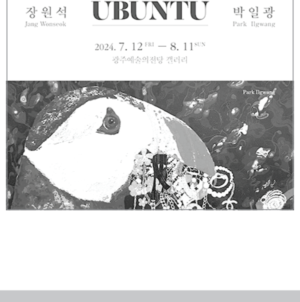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